

인도불교 부흥 열기 힌두교 아성으로 확산

뉴델리 집단개종행사 반향

전국신문 1면 보도 · 방송 특집 방영 지역별 소규모 개종행사 크게 늘어 '가난한 종교' 이미지 극복 과제



이지은 통신원

인도 델리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지난 4일 뉴델리에서의 집단 개종행사가 있는 지 24시간 후, 인도 유수의 민영 뉴스채널인 스타뉴스에서는 이번 개종식과 달리(Dar, 인도 카스트 제도 하에서 불가촉천민을 비롯한 하층카스트)운동에 관한 30분 짜리 특집프로그램을 방영했다. 행사 당일 프라임 뉴스에 이미 개종식에 대한 상세보도가 나간 후였다. 개종식 다음날 전국 신문들은 일제히 개종식 사진과 기사를 1면에 보도했다.

인도 언론의 이와 같은 반응은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왔던 불교에 대한 거의 의도적인 무관심과는 크게 대조적인 것이다. 또한 이번 대 개종이 종교계뿐 아니라 인도의 정치, 사회에 미칠 영향이 지대함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대 개종의 중요성은 인도 불교 중흥의 가능성을 북인도 지역까지 확대시킨 것에 있다. 독립 이후 인도 불교는 대부분 서부 인도의 마하라슈트라주와 주변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불교가 다시 생명력 있는 종교로서 되살아나게 된 계기를 제공한 암베드카르 박사의 지지기반이 마하라슈트라 지역의 하층민, 특히 마하르 카스트 출신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주요 활동무대였고, 대부

분의 성지가 위치해 있는 동북부 인도의 비하르주 또한 불교가 파고들 틈 없는 힌두교의 아성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성지인 부다가야의 사찰조차 막강한 정치력에 밀려 다수인 힌두교도의 수중에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북인도의 사정을 감안할 때, 7개월여에 걸친 전범여행과 뒤이은 수만명의 집단개종은 확실히 북인도 지역에 불교의 새로운 부흥을 예고하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사는 1956년 암베드카르에 의한 집단개종이 마하라슈트라와 주변지역에 그쳤듯이, 이번 쿨디프 라즈에 의한 집단개종 역시 북인도 지역에 불교의 새로운 선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개종식을 주최한 '로드 붓다 클럽'



인도불교의 중흥을 상징하듯 나그푸르시 덕사부미에 최근 건립된 5천여명 수용 규모의 대법당. 덕사부미를 관리하는 암베드카르 박사 기념 위원회가 5천5백만 루피(약 15억원)의 예산으로 아쇼카 대왕이 세운 산처 대탑 모양을 그대로 본떠 지었으며, 돛의 직경과 높이가 각각 37m에 달한다.

측의 실무자인 마우리아(C. L. Maurya)씨는 힌두 원리주의단체들의 방해로 행사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이 90만여명에 달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소규모의 개종식을 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하르 불교도 협회'를 이끌고 있는 까루나 끼르미(Karuna Kirti) 스님 역시 "개종의 조용한 움직임이 각 권력마다

번져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달리뜨들이 불교로 귀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도 불교의 앞날에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인도의 불교는 주로 과거 하층계급 출신인 달리뜨들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다. 1956년 첫 개종 당시부터 인도 사회내의 신분제를 타파하기 위한 사회개혁

의 일환으로 불교가 신앙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도 밖에서는 세계불교의 반열에 올라있는 불교가 오히려 부처님의 나라 인도에서는 '하층민의 종교'로 인식되고 있다.

미약한 재원(財源)도 인도 불교의 미래를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다. 불교도가 비교적 밀집해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갖추어진 사찰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어렵게 마련한 불교인들만의 공간에 불상 하나를 모시는 것도 재정상태가 워낙 열악한 불교도들에게는 꿈과 같은 일로서, 태국이나 일본 등 불교국의 보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 불교에 귀의한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리교육이나 불구(佛具)의 확보 등도 거의 생각할 수 없다. 물론 최근 완공된 나그푸르 덕사부미의 법당은 불교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데 불사였다. 또한 나그푸르에서는 불교병원이 착공되었고, 불교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논의도 지역의 회에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제한된 지역의 이야기 일 뿐,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교는 그야말로 '가진 것 없는' 종교일 뿐이다.

현재 불교 기반 정당인 공화당은 수많은 정파로 나뉘어 통일되고 힘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분열된 정당이 불교인들의 권익 신장에도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가뜩이나 미약한 불교도의 힘이 합쳐지지 못하고 분산된다면 인도의 불교는 갈 곳이 없다.

지리산 환경농업교육장 문연다

실상사 24일 준공... '한생명' 법인 설립도

영성·생태·귀농교육 지리산 자락에 친생태 농업을 전 문으로 하는 불교 환경농업교육장이 문을 연다.

인드라마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는 24일 오후 2시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에 소재한 실상사 귀농전문학교에서 환경농업교육장 준공식 및 사단법인 '한생명' 창립기념 세미나를 갖는다.

실상사(주지 도법)와 인드라마생명공동체가 추진중인 지리산 생태공동체 건설의 일환으로 마련된 환경농업교육장은 지난해 10월 기공한 지 1년만에 세 동의 흙집 건물로 귀농전문학교 신축확사를 완공, 실상사 귀농전문학교와 불교귀농학교 교육생 및 사찰 수련회 참가자들의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지원금 2억4천만원 등 총 3억원의 사업비로 부지 3천750평에 건립되는 환경농업교육장은 이번에 건립된 귀농전문학교 신축확사 이외에 '실상사 작은학교' 교사와 수련관 등 3동의 건물을 더 지을 예정이다.

이번 환경농업교육장 개원을 계기로 인드라마생명공동체는 그동안 추진해 온 귀농교육 중심에서 영성 및 생태교육은 물론 유기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과 생태마을 건설 등 '귀농자 정착지원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인드라마생명공동체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27일 조직 확대, 사업의 다양화 및 체계화,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사단법인 '한생명(대표 도법)'을 창립했으며, 24일 '새로운 삶의 문명, 귀농'을 주제로 창립기념 세미나를 갖는다. (063)636-3776 김재경 기자



14일 김해 동림사에서 봉행된 화엄대신사 영결식.

화엄스님 다비식

10일 입적... 1천여명 애도

범어사 주지와 선원장을 역임한 한산당 화엄 대선사가 10일 김해 동림사에서 세수 77세 법랍 55세로 열반했다. 14일 범어사문도장으로 동림사에서 거행된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법전스님, 범어사 조실 자유스님 등 1천여명이 동참해 스님을 추모했다.

1925년 경남 고성군에서 태어난

스님은 46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하고 48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1955년 상주 남장사 주지, 63년과 72년 범어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제망선원에서 20년 거를 선반했다.

스님은 "칠십칠년 살아온 몸속의 나그네, 꼭두각시 몸을 벗고 어느 곳에 가보고, 만일 누가 물어도 말할 게 없나니, 신어산 영봉엔 단풍잎이 날으네. '이고 후회라 감장사 감도 하나 못 팔고 불알만 풍풍 일것네 하리라'는 열반송을 남겼다. 김해=천미희 기자

계룡산 자락 시민선원 생겼다

공주 학림사 무료운영

계룡산 자락에 위치한 공주 학림사(주지 진호)가 일반인들에 참선 수도도량으로 제공할 오동시민선원을 20일 개원한다.

연건평 200여평 규모의 이 선원은 24시간 기거하며 수도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과 휴식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종파나 종교를 떠나 누구나 선을 체험하고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1~2일, 3~4일, 1주일, 3개월 코스의 다양한 선 프로그램을 마련, 무료로 운영된다.

이번 시민선원 개원으로 대전 및 충청북 지역의 선문화가 새롭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042)825-0515 김재경 기자

사찰옆에 대형축사 건립

울산 신흥사 "수행환경 훼손·식수원 오염"

신라시대 건립된 전통사찰인 울산 신흥사(주지 지은) 주변에 돼지 1만여 마리의 기업형 축사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조승수 울산 북구청장이 주민들과 사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사를 허가해 1만5천 그루의 나무가 유실될 위기에 직면했다. 마을 주민의 식수원인 지하수에도 심각한 오염이 염려되며 여름이면 악취로 청정한 수행 공간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주민들의 민원 접수시 조승수 북구

청장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시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지만,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허가를 내주고 공사가 시작했다는 것이 사찰측 주장이다. 그러나 북구청장은 정부의 정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에도 정당한 허가였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신흥사 주지 지은스님은 "신흥사와 주민들은 돈사 건설 계획이 전면 백지화 될 때까지 관련기관을 상대로 서명운동과 시위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총화중 내년예산 96억

총화중 중앙총회(의장 만오)는 13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총회의원 20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9차 중앙총회를 개최, 내년도 예산 96억원을 심의 확정했다(사전). 또 이날 총회에서는 내년에 강원도 인제군에 종단원찰을 착공하고 종단 홈페이지 개설, 종도 연수 등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경숙 기자

몽골 밀교의식 내년 한국서 시연

진각종 간단사 방문 한·몽 불교교류 합의

몽골의 밀교의식이 내년 가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연될 전망이다. 또 한국과 몽골의 불교교류도 적극 추진된다. 회당대중사 탄생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진각종 교육원(원장 혜경)은 11월초 몽골 간단사를 방문, 총무원장 등 불교지도자들과 만나 내년 10월 17~18일 봉행될 밀교의식 시연방법과 국제학술회의에 몽골 불교지도자들을 초청했다. 이에 대해 간단사는 진각종 행사에 밀교학자 1명과 밀교의식 시연 스님 등 6~7명

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한 진각종은 이번 방문에서 진각종과 몽골과의 인적, 문화적 교류를 정례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단사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시내 중심에 있는 전통사찰로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몽골의 대표적 사찰이다. 진각종이 간단사와 교류를 시작할 경우 이는 국내 종단으로서 처음있는 일이라 향후 한국과 몽골 불교교류의 교류 활성화에도 커다란 전기가 될 전망이다. 이경숙 기자

전북불교대 수계산림

24일 청화스님 초청법회

전주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은 24일 오후 2시 큰법당에서 보살계 수계산림 및 청화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사전 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수계법회는 '온 가족의 불자 화운'의 일환으로 어린이, 청소년의 수계동참을 기다린다.

한편 전북불교대학은 10월 4층 법당에서 대한생활불교회 이사장 재원스님을 초청, '전북불교대학 상조회' 50명의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063)226-7878 조기식 전북지사장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현 시대의 火(불)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호탄 石楠葉(석남엽)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무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유정, 정자결핍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청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